

목포시, 풍성한 예술공연 ‘아듀 2022’

목포시립교향악단·극단 갯돌·목포시립무용단 공연

‘문화예술의 도시’ 목포시가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롭고 특별한 예술공연으로 2022년을 마무리한다. ◇목포시향 송년음악회 ‘Viva Opera’ 목포시립교향악단의 송년 음악회인 ‘Viva Opera’가 오는 22일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다. 정현 상임지휘자의 지휘로 진행되는 이번 음악회는 바그너의 오페라 ‘뉘른베

르크의 명가수’ 서곡으로 시작하며 ‘토스카’,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주디타’, ‘사랑의 묘약’ 등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유명 오페라들의 아리아를 국내 정상급 성악가인 소프라노 이운경, 소프라노 조지영, 메조소프라노 이아름, 테너 이재식, 베이스 전태현 등이 선보인다. 연주회의 대미는 목포시립합창단, 여수시립합창단 등 60여명이 함께 출연해

‘환희의 송가’로도 불리는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 ‘합창교향곡’으로 장식한다. ◇군대음악극 ‘청춘연가’ 양코르 공연 극단 갯돌이 군대음악극 ‘청춘연가’를 오는 23일과 24일 오후 7시30분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 1897 야외 특설무대에서 실연했던 작품이다. ‘오페라 풍각쟁이’, ‘순정월야’, ‘청춘계급’, ‘목포의 눈물’ 등 1930년대를 풍미했던 근대가요를 다양한 리듬으로 편곡한 노래와 화려한 춤 등이 관람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특히 근대가요 청춘 디바로 알려진 배우 하진술이 주인공을 맡아 당시 원형을 그대로 살려 노래한다.

하게 엮은 근대음악극으로 지난 9~10월 10회에 걸쳐 근대역사관 1관과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 1897 야외 특설무대에서 실연했던 작품이다. ‘오페라 풍각쟁이’, ‘순정월야’, ‘청춘계급’, ‘목포의 눈물’ 등 1930년대를 풍미했던 근대가요를 다양한 리듬으로 편곡한 노래와 화려한 춤 등이 관람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특히 근대가요 청춘 디바로 알려진 배우 하진술이 주인공을 맡아 당시 원형을 그대로 살려 노래한다.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 1897 실내 공연은 입점해있는 요식업체와 협력해 1930년대 로망스 카페 디너쇼 형식으로 진행하며, 문화예술회관 극장 버전은 영상과 무대 미술 등을 통해 근대문화의 체감 효과를 극대화한다. ◇제42회 정기공연 ‘토별산수무’ 총사위 오는 28일에는 목포시립무용단이 제42회 정기공연 ‘토별산수무’를 열고 화려한 춤사위를 선보인다. ‘토별산수무’는 수궁가의 토끼와 자라 이야기를 무용으로 표현한 가족 무용극이다. 목포시립무용단만의 색채를 입힌 각 장을 극과 무용, 영상의 콜라보로 표현한다. 이번 공연은 시대와 세대를 거쳐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수궁가를 무용으로 재해석해 고전의 교훈과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특히 목포시립무용단, 목포시립연극단, 팝핀댄서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화려한 영상미와 함께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목포시 관계자는 “연말 공연들이 한해를 의미있게 마무리하고 밝은 새해를 기대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내년에도 문화예술의 도시답게 생활 속에서 문화 예술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말 공연 모두는 온라인 티켓링크(wwww.ticketlink.co.kr)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며 자세한 일정은 목포시 홈페이지 및 목포시 SNS(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포=정해선기자



나주시는 최근 공공기관 추가이전 유치 추진단을 구성하고 선제적인 유치 전략 마련을 위한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나주시 제공)

공공기관 추가 이전 ‘혁신도시 시즌2’ 잔결음

나주시 ‘유치 추진단’ 발족...정부 정책 동향 촉각
연관성·파급효과 등 고려 유치리스트 33개소 마련

나주시가 국가균형발전 최대 현안인 공공기관 추가 이전, 이른 바 ‘혁신도시 시즌2’의 선제 대응에 소매를 걷어 붙였다. 나주시는 19일 “내년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에 대응해 강영구 부시장을 단장으로 내부 유치 추진단을 발족하고 시 작을 알리는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유치추진단은 지난달 공개 석상을 통해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내년 말부터 가시화 될 것”이라고 밝힌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발언 등에 따라 기존 혁신도시로 이전한 16개 공공기관과의 연관성, 지역 파급효과를 고려한 최우선 타겟을 선정, 공공기관 33개소를 유치

리스트에 올렸다. 추진단은 부시장 중심의 총괄 운영반과 실무 추진반 등 2개 반, 4개 팀, 17명의 단원으로 구성됐다. 4개 팀은 기획·홍보, 유치·지원, 정주여건 개선, 부지 확보 등으로 국가균형위의 공공기간 추가 이전 계획 동향을 주시해 선제 유치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홍보팀은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한 유치 자문단 구성을 시작으로 국회 의원, 전문가 초청 정책 토론회 개최, 범국민적 관심 유도를 위한 체계적인 매체 홍보, 중앙부처·공공기관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에 힘쓴다. 유치·지원팀은 공공기관 임직원 가족 동반이주에 대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 자녀 교육 지원,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 이전 공공기관 세제 감면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정주여건 개선팀은 혁신도시 3대 현안 문제로 꼽히는 악취, SRF열병합발전소, 상가 공실률 문제 해소에 주력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부지확보팀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 부지 마련을 위해 활용가능한 시유지 데이터화, 혁신도시 미입주 건물 및 폐교 등 유휴 공간 발굴, 빔가람 에너지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에너지 국가산단 등 연계 부지 활용 방안 등을 모색할 방침이다. 추진단은 월 1회 정기회의를 갖고 각 분야별 추진상황을 점검, 정부 정책 동향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강영구 부시장은 “혁신도시 16개 공공기관의 연관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산학연 클러스터를 강화하는 등 나주만의 강점을 살린 유치 논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정종현기자

무안군,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무안군은 19일 “행정안전부 주관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91개 기관을 대상으

로 실시됐으며, 외부 전문가 위탁평가를 통해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등 4개 분야 10개 지표에 대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실시해 전문적인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특히 무안군은 군민 관심 정보를 미리 공개하는 사전정보 충실성, 청구처리 적정성, 고객 수요분석 등 고객관리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산 군수는 “투명한 정보공개 업무 추진을 통해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기자

‘폼生폼士 강진향교’, 문화재청장상 수상

고품격 문화유산 향유 기회 제공 호평

강진군·강진문화원이 추진한 ‘폼生폼士 강진향교’가 2022년 지역문화재 활용 우수사업으로 선정돼 문화재청장상과 상금 100만원을 수상했다. 강진군은 2022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향교·서원문화재 분야’에서 시행된 108개 사업 중 7개 지표별 세부기준에

따른 현장점검과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6개 우수사업에 선정됐다. ‘폼生폼士 강진향교’ 프로그램은 유치원생부터 초·중·고등학생, 성인까지 전 계층을 아우르는 콘텐츠로 큰 인기를 끌었다. 2022년 11월 말 기준 9천400여 명의 누적 이용객을 기록했다.

폼生폼士의 ‘폼’은 플랫폼(platform)을 의미한다. 문화와 교육, 체험이 공존하며, 자유롭게 교류하는 소통의 정거장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특히 ‘다산인(人·in) 강진향교’, ‘다같이(多 가치) 강진향교’, ‘삼시세끼 힘향교’ 등 지역의 역사성과 스토리 중심의 우수 체험 교보재를 개발해 자생력을 갖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의 모범사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진=정영록기자

영광실내수영장 격일제 운영

영광군은 19일 “극심한 가뭄으로 물 부족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2023년 1월 1일부터 가뭄 해제 시까지 영광실내수영장을 격일제(화·목·토·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강수량 부족으로 영광지역 상수도 수원지와 농업용수 공급 등이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영광실내수영장을 격일제 운영해 사전에 물 절약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영광군은 가뭄 극복을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스포티움 내 수영장 샤워실·화장실에 사용하는 상수도를 종합운동장 관수용 지하수로 대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절수형 변기·샤워기 설치, 물 절약 홍보 등 가뭄 극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종만 군수는 “공직자와 관공서부터 실천수범하며 생활 속 물 절약을 실천하고 군민들도 물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광=김동규기자



진도군,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수상

진도군은 19일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대상은 재정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행사로 전국 지자체의 세출 절감, 세입 증대 등 우수 사례를 발표·공유, 지방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 169개 지자체가 참여한 이번 행사는 총 3차례 평가 이후 최종 선정된 10개 기

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등 수상을 위한 최종 발표회를 가졌다. 진도군은 세입 증대 분야에서 ‘잠자는 공공자금 깨우기! 우리는 금융전문가!’라는 주제로 최종 본선에 진출, 공공자금 운용혁신으로 이차 수입을 높이고 세외수입 증대를 이끈 모범 사례로 높은 점수를 받아 대통령상과 시상금 5억원을 수상했다. /진도=박세권기자

장성토지 매매 (분양)

▶ 장성댐 5분 (광주에서 20분)

▶ 즉시 건축 가능 (토목공사 완료)

▶ 공기최고 (촉사없음) , 소나무 숲

▶ 장성댐 , 등산로 (남동향)

100평,150평,200평,700평 (분할 가능)



010-6670-9800

경매교육 [기초반]

※ 경매 실전 교육반 (10명)

-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 2) 중급반 (실전부터 ~)
- 3) 특수반 (유치권,법지,지분)
- 4) 투자반 (투자가능분)

▶ 경매 물건 추천 ◀

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 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3억9천
남구 임암동 (근린상가)2층 ▶ 감정가 5억1,600만 → 최저가 2억8,800만
서구 매월동 (지동차상가 7층) ▶ 감정가 6억2,600 → 최저가 4억3,800
광산구우산동 (근린상가)2층 ▶ 감정가 6억1,700 → 최저가2억7,600
광산구소촌동 (대지 41평 ▶ 감정가 6억5,400 → 최저가 6억5,400
북구우산동 (주택) ▶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300만
서구화정동 (주택) ▶ 감정가 1억8,500억 → 최저가 1억2,900
북구운암동 (아파트)벽산블루 ▶ 감정가5억7,700억 → 최저가 3억2,300

010-2614-9801